

상업성 사슴수입 절대 안된다

성 락
다다사슴목장

봄이 되면서 양록인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사슴뿔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다.

겨우내 머리에 달고 있던 묵은 뿔덩어리를 싹둑 떨어뜨리고 싱싱한 새뿔을 키우는 사슴들의 모습을 고대하고들 있다.

그런데 사슴수입자유화조치에 편승, 외국으로부터 값싼 사슴을 들여다 국내에 분양, 한몫 챙기려는 수입업자(또는 일부 양록인)들은 무척이나 초조하고 바쁜 듯하다. 연초부터 사슴수입물량을 업자들끼리 조정하느라 지치고 볏고 아우성들이다. 남은 몰라도 나만은 당초 계획한 물량을 모두 수입해 기왕이면 큰돈을 벌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수입업자도 있는 듯하다. 이러다간 한마리도 수입하지 못해 그동안 받아챙긴 계약금 되돌려주고 사기꾼소리 듣지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저 단 몇마리씩이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정하자고 호소하고 나오는 업자도 있다고 들린다. 여기에 동조, 당초 2천~3천마리까지 수입계획서에 올렸던 마리수를 몇

십두까지 자진해서 깎아내리는 업자들도 많은 듯 하다.

웬만한 성격이면 수입이고 뭐고 집어치겠다는 말이 나올 듯도 한데 계속 수입에 미련을 두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슴수입 분양 사업이 떼돈을 벌 수 있는 보장된 수익사업이라도 되는 듯 싶다.

이제 종록수입차원에서의 수입주장은 뒷전으로 숨어버린 것 같다. 그저 몇월까지 수입사슴을 분양하겠노라고 큰소리치며 계약금 받아 잘 쓰고 다니는 몇몇 한심한 업자들만이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실 사슴개량을 위한 종록수입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만은 아니다. 타업종인 양돈업과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은 우수종돈을 영국 등지로부터 들여다 개량에 이용해 왔고 또 그 효과도 매우 컸다. 젓소의 경우도 선진 낙농국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산유능력을 보유한 종모우 정액들을 수입해다 국내 젓소들을 고능력우

대열에 올려놓는데 성공하고 있다.

사슴의 경우도 국내에 있는 레드디어, 엘크의 능력을 보다 우수하게 개량하기 위해 외국의 우수한 종목을 선발, 수입해서 개량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레드디어, 엘크의 숫자가 많아봐야 1만두 미만인 점을 본다면 종족으로서 필요한 사슴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족이라는 구실로 필요이상의 두수가 수입되어 국내 꽃사슴과의 중간교잡에 마구잡이로 이용된다면 이로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중간교잡에 의한 새로운 종의 생산 측면에서 중간교잡을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슴의 혈통서는 고사하고 개체기록표조하도 전무한 종을 또다른 순종과 교잡하는 등 무계획적인 교잡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열성인자를 지닌 잡종들이 소위 「○물먹은 사슴」으로 버젓이 유통되게 된다면, 또 새로이 사슴을 시작하는 순박한 농민들에게 좋은 사슴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면 이는 무슨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사슴은 그저 살만찌워 고기로 판매하는 동물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녹용·녹혈·녹중탕 등 한국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재들을 생산하는 가축임

을 본다면 무계획적인 중간교잡은 시급히 근절돼야 하고 이같은 중간교잡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질 우려가 큰 외국사슴의 상업적 수입 분양은 절대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우수종목 선발을 위한 낙각전시회 등은 늦은감이 있으나 참으로 의미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꽃사슴·레드디어·엘크 등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품종들의 순수혈통을 찾아서 이들중 능력이 뛰어난 개체를 선발, 종모록으로 정립하고 이의 후대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순종개량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슴의 수입은 바로 이같은 국내의 노력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검토가 돼도 늦지 않다. 다행히 사슴수입을 추진하는 수입업자들 중 돈만을 추구하는 재벌기업들이 자제력을 발휘, 빠져있다. 나머지는 양록인들 또는 축산관련 오피상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제라도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슴의 수입이 국내 양록업은 물론, 대체축산업으로서의 양록업 측면에서 국내 축산업을 무너뜨리는 불장난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상업적 사슴수입의 위험성은 현재 수입에 참여하고 업체나 개인이 많다는 데서

도 찾을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사슴을 수입하기 위해 현지의 질병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 맞추다 보니 수입선은 크게 제한되어 대부분이 호주 등 일부 국가들로부터만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내의 많은 수입상들이 수입선을 한곳으로 집중하다보면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가격경쟁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고 이는 곧 값싼 저질사슴의 수입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

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값싼 저질사슴을 국내에 들여와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생기는 외화낭비와 국내업계 혼란은 실로 반애국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상업성사슴 수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사슴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업자들중 대부분은 그동안 농축산물을 주로 수입해온 수입상들이지만 일부 수입추진인사들은 직접 사슴을 사육하며 불과 2~3년전까지도 수입반대를 목청높이 외치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든 양록인들의 공유기구라고 볼 수 있는 언론등을 소유하고 이를 이용해 수입·분양의 선두에 나서겠다고 시도하는 점이다. 이는 언론이라는 기구의 일반적인 공신력과 인

식도를 이용, 수입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수입하는 사슴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농가들로부터 다소 높여보자는 알팍한 시도로 이는 양록인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런 사슴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양록인들을 많은 혼란속에 몰아넣었고 일시적으로 사슴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이를 계기로 대두되기 시작한 양록업내의 자구노력들은 한국양록산업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사슴사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각종 정책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해왔으나 점차 정책적 관심이 보여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양록인들은 나혼자만 잘살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상업성 사슴수입을 자제시키고 현재와 같은 양록업자구노력분위기를 계속 발전시켜 국내 축산업속에서 양록업이 당당한 위치에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한번 생산자 단체들이 전열을 정비, 양록인들의 구심체가 되어 양록업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